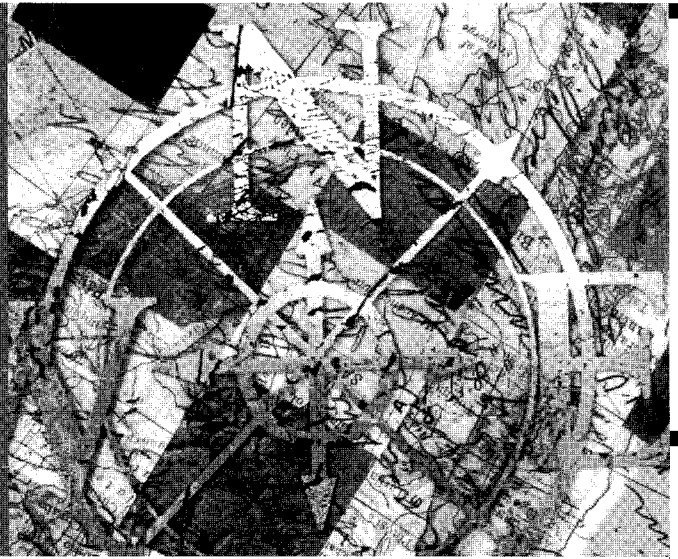


2009년 5월 9일(토요일) 05:06~05:55  
KBS1 라디오 「농수산 정책진단」 방송분

## KBS 1R농수산 정책진단 오리산업 현황과 문제점, 발전대책



지난 5월 9일(토), KBS 1라디오 프로그램 <농수산 정책진단>에 한국오리협회 이강현 전무와 농촌경제연구원의 이형우 연구원이 출연, 약 35분간 오리산업에 대한 대담을 진행, 오리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담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타이틀

#### \*오프닝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표영준입니다.

입하가 지나면서 절기로도 이제는 초여름문턱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선지 지역에 따라서는 섭씨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기록한 곳도 있는데, 이렇게 기온이 오르는 것은 우리네 농촌에서 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뜻도 되는 거죠.

#### \*오늘의 초점

##### [표영준 아나운서]

지난 5월 2일, 오리고기를 많이 소비하고 오리가 우리 몸에 좋은 것을 널리 알리자는 목적으로 오리사육농가와 관련산업 종사자들이 힘을 합쳐 정한 날, 오리데이였습니다.

5월 2일 오리...오이... 아주 맞춤형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실제로 오리고기는 최근 들어 국민소득이 늘고 외식산

업이 발전하면서 보양식품으로 소비가 급속도로 늘고 있어서 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수산정책진단에서는 이 오리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오리 산업정책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발전과제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형우 전문연구원, 그리고 한국오리협회 이강현 전무, 이렇게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전무님께 먼저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난 오리데이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치렀습니까?

##### [이강현 전무]

네, 이번 오리데이는 5월 2일이 석가탄신일이고, 연휴인 관계로 4월 30일에 서울 신촌 밀리오레 앞 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스포츠계와 연예계 스타의 사인회 및 홍보대사 위촉, 그리고 5,200인 분 오리요리 시식회 등 흥미로운 행사들이 많아서 그런지 많은 시민들이 모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시식회가 시작되면서 많은 인파가 몰려 준비한 물량이 금세 소진됐고, 오리고기 브랜드 업체의 시식과 할인 판매 행사 인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오리고기 주 소비층도 그렇고, 소비행사 참여세대가 대부분 장년층이었는데 이번 행사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해 또 다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표영준 아나운서]**

젊은이들이 오리고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앞으로 오리산업에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강현 전무]**

네 그렇습니다. 또한, 조리학과 학생들이 오리고기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열띤 경쟁을 하기도 했고, 각 지방에서는 지역행사 등과 연계해서 자체적인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표영준 아나운서]**

이형우 연구원님, 최근에 오리산업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형우 연구원]**

네, 농업생산액이나 사육규모 면에서 살펴볼 때 급성장이란 표현이 맞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국민들 소득이 증가하고 건강보양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오리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오리산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간략히 설명드리면 오리 사육규모면에서 1991년에 약 140만수였던

것이 2007년 기준으로 1천만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호당 오리사육두수도 2000년의 경우에 약 400수였던 것이 지금 현재는 약 1,500수 정도로 10년 사이에 약 세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사육수수가 증가한 반면, 사육호수는 감소하면서 규모화가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리가격과 생산량을 고려한 오리의 농업총생산액을 살펴보면 약 6천억 내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축산물 중 계란 다음으로 큰 수치입니다.

오리고기 생산량과 소비량을 보면 94년도에 26,000톤이었던 생산량이 사육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07년에는 12만톤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은 2.47kg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작년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오리산업이 크게 위축되었는데요. 그래서 2008년에는 2007년도보다 규모가 약간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영준 아나운서]**

생산액이 6천억원 정도라면 유통과정에서 확대 재생산이 될 경우 1조단위를 훌쩍 넘는 산업이고 그만큼 이제는 오리산업이 계란 다음으로 클 만큼 우리 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 지역별로는 사육현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로 전라남도 지역에서 많이 사육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강현 전무]**

방금 이형우 연구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007년 기준으로 7천여 농가에서 1,100만마리의 오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전남지역이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 오리를 집단사육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는 지역으로 약 49%를 점유하고 있고, 다음이 전북지역으로 20%정도, 또 충북지역이 약 13%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 2천수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가의 비율이 97%인데, 전업농가 평균 사육수는 12,500마리 정도로서

점차 전업화, 규모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표영준 아나운서]

우리 농업 자체가 지금 전업화·규모화 이것이 어떤 당면과제처럼 돼있는 상황인데 오리농가의 경우는 97%가 전업농가라면 어느정도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이형우 박사님, 그런데 오리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그거같지만 품종이 다양하다면서요?

### [이형우 연구원]

지난번에 저희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저희도 오리 품종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품종을 소개한다면, 우선 난용종으로 인디안러너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원산지가 동남아시아이며 연간 150~200개 정도의 알을 낳는 종으로 양 날개 색이 흰색이나 녹색을 띵니다. 또다른 난용종으로 캠벨이라는 품종이 있는데 이 중에도 암색종, 백색종, 카키종 등이 있고 주 사육품종은 카키종인데 이는 다산종으로 연간 200~300개 정도의 알을 낳습니다.

육용종은 대표적인 것이 르왕이라는 종이 있는데 가장 오래된 품종으로 원산지는 프랑스입니다. 그 밖의 육용종으로 에일스버리, 머스코비, 체리밸리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는 것은 체리밸리 종입니다. 이 종은 영국 체리밸리사가 육종한 육용오리 브랜드로 종오리는 건강하고 성장이 빠르며 사료효율이 좋고 경제성이 무척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 [표영준 아나운서]

그러면 어떤 것은 난용으로 사육하고 어떤 것은 육용만 하고 두 가지를 혼합하는 종은 없습니까?

### [이형우 연구원]

그러한 종도 있습니다. 난육겸용종이라고 페킨종, 오펙톤 종 등이 있습니다. 가장 전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것이 페킨종입니다.

### [표영준 아나운서]

그렇게 품종이 여러 가지라면 지역에 따라서도 예를 들어 전라남도 영광등지에서는 어떤 품종을 많이 사육

하고 충청북도 어디서는 또 어떤 품종을 많이 기르고 있다...그런 건 없습니까?

### [이강현 전무]

현재 난용종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경제성이 없어 별도로 사육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육용으로 사육하고 있는 오리 품종은 크게 2가지입니다. 페킨(pekin)종으로 영국과 프랑스에서 개량된 품종이며 우리나라 전체사육수수의 약 85% 정도가 이 품종입니다. 대개 오리하면 떠오르는 흰색 오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 15% 정도는 옛날부터 국내에서 사육되어 온 토종오리로 흔히 하천이나 강가에서 볼 수 있는 유색오리를 말합니다.

이 토종오리는 그동안 육용은 물론 오리농법에 주로 활용되어 왔으나 작년 AI발생이후 방역상 가급적 농아먹이는 것을 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표영준 아나운서]

그런데 최근 들어 오리산업이 이렇게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것은, 이 오리산업이 뭔가 그럴만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형우 연구원]

오리산업의 경우 외형적인 성장이 상당히 컸습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외식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기인한 것 같고요. 오리고기가 갖고 있는 불포화지방산이라는 특유의 성질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호가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경연에서 실제로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 499명 중 오리고기를 싫어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5명 정도로 약 7%에 불과했습니다. 젊은 층에서도 앞으로 오리고기 소비를 늘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80%에 이르기 때문에 오리고기에 대한 선호도는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표영준 아나운서]

장래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네, 외식산업의 확산, 그리고 오리가 가지고 있는 불포화지방산 이라고 하는 좋은 영양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이런 것으로 인해 오리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리가 소비자에게 소비가 되어 할텐데 그럼 현재 오리는 유통구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강현 전무]**

우리 오리산업은 육계산업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점이 있습니다. 특히, 집산지를 중심으로 큰 계열업체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리사육농가의 70% 이상이 계열업체와 위탁사육계약을 맺고 있는 점, 그러면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 등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계산업의 경우는 주요 유통구조가 치킨전문점 등 요식업체와 단체급식과 같은 대량 급식처, 정육점과 대형할인점, 군납 등 다양하게 유통되고 있는 반면, 오리의 경우는 생산물의 85% 이상이 가든형 식당과 오리요리 전문점에서 유통 소비되고, 가정에서의 소비는 극히 적어, 유통구조가 상당히 편중되어 있어 이러한 부분이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표영준 아나운서]**

그렇다면 결론이 나온 셈이군요, 오리산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가든형 식당이나 전문점 등 요식업소 중심의 소비구조에서 벗어나 일반 소비

자가 수퍼 등에서 쉽게 사서 쉽게 조리해먹는 그런 단계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왜 오리 소비가 이렇게 외식업체에 편중되 나타났던 겁니까?

**[이형우 연구원]**

지금까지 오리고기가 대중화되지 못했던 까닭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요리가 훈제 등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기타 탕이나 전골찌 이런 요리에 있어서는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리도 이제 소고기 등심이나 삼겹살 같이 가정 내에서 구이용으로 손쉽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배달중심의 통닭시장이나 이런 부분의 신규수요 창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미 수요가 폭넓게 정착된 소, 돼지, 닭의 소비행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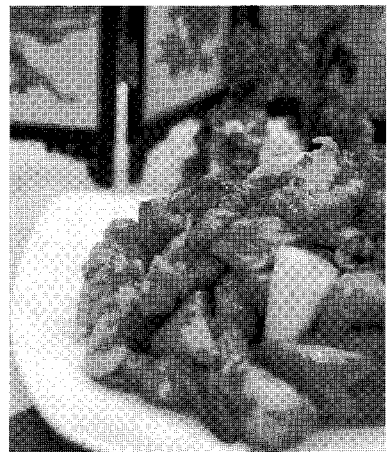
**[표영준 아나운서]**

새로운 요리방법을 개발해서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이나 치킨전문점처럼 오리고기를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여기서 잠시 직접 오리를 사육하시는 현장의 농업인 한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에서 오리를 사육하시는 정연우 농업인이십니다.

정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진천하면 예로부터 김유신 장군의 출생지로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생겨진천이라



고 해서 살아서는 살기 좋은 고장이 바로 진천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살고 계시니까 맞습니까, 그말이?

**[정연우 충북지회장]**

진천지형이 서북창이 막혀있고 동남행이 트여 있으면서 수자원이 풍부해 사람이 살기도 참 좋습니다.

**[표영준 아나운서]**

오리도 살기 좋은 모양이죠?

**[정연우 충북지회장]**

네, 그래서 이 지역에 오리사육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많이 늘어나는 추세구요.

**[표영준 아나운서]**

네. 아까 이강현 전무님께서 충북지역에서 오리가 약 13% 정도 사육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오리를 사육하고 계십니까?

**[정연우 충북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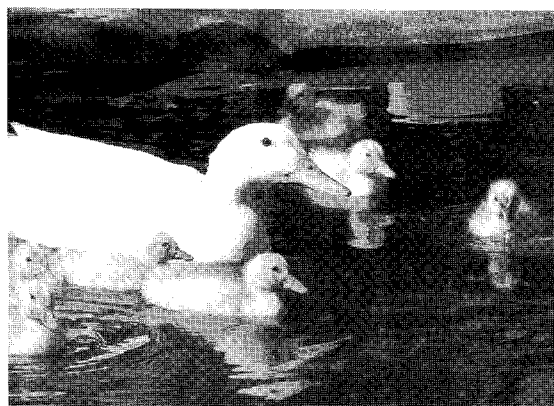
이 지역에서는 페킨오리라고 해서 흰색오리가 95% 이상 사육되고 토종오리가 5% 미만으로 사육되고 있습니다. 저는 토종오리만 전문 특화해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표영준 아나운서]**

왜 토종오리만 고집해서 사육하시는 지 그 이유를 여쭙봐도 되겠습니까?

**[정연우 충북지회장]**

제가 토종오리를 시작하게 된 것이 94년도에 귀농을 생각하던 중에 지인이 오리를 사육하고 있었는데 제



나름대로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토종오리 사육을 시작하게 됐구요. 재래시장하고 친환경 오리농법 분야로 특화사육을 해왔습니다.

**[표영준 아나운서]**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타격이 있었던 오리업계인데 정선생님의 경우는 피해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정연우 충북지회장]**

저희는 직격탄이었습니다. 재래시장과 친환경 오리농법이 지난해 발생한 AI 때문에 전면금지가 되면서 생산하던 알, 새끼, 중추 등 모든 것을 다 폐기처분 해야 했었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도 상당히 많이 봤었고 아직도 고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표영준 아나운서]**

오늘 얘기가 오리산업을 좀 더 발전시켜 보자는 취지거든요. 축산업의 한 중심축으로 오리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좀 더 발전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하시는지 현장에 계신 농업인 입장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연우 충북지회장]**

사실 그동안 토종오리에 대해서는 정책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2008년 AI 이후 관심을 조금씩 받기 시작하는데요. 그동안 미흡했던 오리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일선 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축사, 방역, 사육환경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골고루 지원책을 펴주셨으면 합니다. 또, 종오리 등록제가 시행되는데 페킨오리(흰오리)에 국한되어 실시되고 있는데 토종오리에 대해서도 육종개량이 하루빨리 추진돼 정부제도권 내에 진입될 수 있도록 하는바램입니다.

**[표영준 아나운서]**

잘되리라 믿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서 오리 사육하시는 정연우 농업인과의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방역이라든가 시설환경에 정부지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종오리 육종개발에 토종오리

를 포함시켜 주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무님께서 부연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이강현 전무]**

현재 우리나라에는 영국과 프랑스 육종회사에서 값비싼 개런티를 지불하면서 종오리를 수입해오고 있어, 하루빨리 국산 오리 육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토종오리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혈통이 다양해 복원이 어려웠던 토종닭 복원사업도 성공한 만큼, 국내산 토종오리 복원은 그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어 희망이 있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표영준 아나운서]**

국산 종오리도 개발되어 나타날 날이 멀지 않았다면 이강현 전무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오리산업이 갑작스럽게 급격한 발전을 이룩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형우 연구원]**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 한국오리협회에서 개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생산부문에 있어서 보자면, 원종오리를 아직까지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면서 종오리 수출국에서 AI 발생할 경우 종오리 수급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5년 유럽전역에 AI 발생하면서 산란종계를 유럽에서 수입하는데 수입이 지연되자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농가 관리에서도 아직은 육계보다 규모화되지 않다보니 사육시설이 영세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천년대 3차에 걸쳐 발생한 AI때도 오리농가에서도 항상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오리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이런 유

통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산과는 품질이나 맛에서 엄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원산지가 둔갑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영준 아나운서]**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오리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나라 원종오리가 없다면, 그런데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한다? 이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형우 연구원]**

이것은 종오리가 아닌 오리고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표영준 아나운서]**

아네 그렇군요. 이강현 전무님, 이런 부분에 있어 협회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강현 전무]**

이형우 박사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산업이 급성장하고 갈수록 오리사육이 집약화·전업화 되면서 과거보다는 산업이 성숙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업계의 의식구조 개선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사육농가에서는 사양관련 표준 지침이 없어 농장별 생산성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질병방역 의식이 다소 떨어지는 곳이 많아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위험성이 상재하고 있고, 가공·유통분야에도 이와 관련한 기술과 지식, 또한, 위생수준이 떨어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앞으로 실효성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을 중점 실시하여 오리 산업 전반의 의식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고요.

또한, 2007년부터 시작한 오리 임의자조금 사업을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고, 의무자조금 시행을 위해 기반을 닦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표영준 아나운서]**

조금 전에 이형우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외국산의 국

내산 둔갑판매 성행,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무님께서 좀 더 보충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강현 전무]**

어차피 품종 자체는 외국에서 수입되서 국내에서 생산되지만 오리고기에 대해서는 한우나 돼지, 닭고기에서는 원산지 표시 의무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반면, 오리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보니 값싼 저질의 수입 오리고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국산이 가장 많은데요. 이것이 국내에 들어와서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다보니 소비자들은 속아서 구매하는 셈이 되고 품질이 낮다보니 그로인해 국내산 오리까지 소비가 줄어드는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하루 빨리 오리분야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시행해야 합니다.

**[표영준 아나운서]**

어느 품목이든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형우 연구원]**

오리의 경우도 닭고기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별 도압실적을 이용해 소비지수를 뽑아보니 2007년을 기준으로 해서 5월 이전에는 연평균 도압실적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2월 같은 경우에는 평균 도압실적 대비 최고 33%까지 소비가 감소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리고기 소비가 여름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는 보양식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표영준 아나운서]**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오리산업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이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 김영만 사무관을 만나보겠습니다. 김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오리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정부정책이 잘 추진돼 와서 그런 걸까요?

**[농림수산식품부 김영만 사무관]**

사실 정부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주요가축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부터 오리산업 비중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오리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한 오리도축장(24개소) 시설 현대화, 가축수송 선진화를 위한 가축수송 특장차량 구입비 지원, 열악한 오리축사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지원, 오리사육농가의 수급 안정을 위한 오리고기 균납 추진('08.8.1부터), 그리고 금년 시행되는 오리사육농가 교육제도 도입(2009년) 등 오리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영준 아나운서]**

오리산업이 이대로 발전하다 보면 우리나라 2대 축산업에 드는 정도로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문제점도 약간 있는 것 같은데 현장의 의견도 들어보시는지요?

**[농림수산식품부 김영만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오리협회 임직원 및 오리 사육농가 면담 등을 통해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최근(4.22)에는 충남 성환에 있는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오리협회 임직원, 오리사육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리산업 발전대책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표영준 아나운서]**

특히 조금 전에 한 농업인께서 수입산 종오리가 국내에 95퍼센트를 차지해서 국산 자생오리의 국산화방안이 나와야한다..그런 요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없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 김영만 사무관]**

그 동안 국산 자생오리는 오리농법에 의한 벼 재배를

위해 주로 사육되어 정부정책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국산 자생오리 사육능가는 소비가 한정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을 통해 금년 중 국산 자생 오리 교배체계 설정 연구와 사양관리지침서를 발간·배포하여 우수한 국산 자생오리를 생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오리고기 소비확대를 위해 금년부터 3년간 다양한 오리고기 제품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현재 오리협회와 협의하여 마련 중인 오리 산업 발전대책에 국산 자생오리 지원 대책이 추가로 발굴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표영준 아나운서]**

그러면 발전대책이 마련되서 새로운 대책이 나오려면 언제쯤이면 가능하겠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 김영만 사무관]**

아마 금년 중에는 마무리되야 할 것이고요. 신규사업으로는 내년엔 어렵지만 내후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표영준 아나운서]**

앞으로 추진하실 오리산업의 정책 방향이나 과제, 짚막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 김영만 사무관]**

계열업체와 오리사육농가에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0년부터 모든 도축장과 식육판매점 포장유통의무화를 위한 포장유통의무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오리 계열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오리 사육환경 및 사양관리 개선과 조속한 오리 의무자조금 도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AI 발생시 오리 사육능가는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재발 방지를 위해 오리사육 농가는 철저한 방역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표영준 아나운서]**

알겠습니다. 오리산업이 축산업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의 김영만 사무관이었습니다. 이 전무님, 지금 정부

쪽에서는 생각도 있고 정책도 많이 추진하고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이강현 전무]**

지금까지는 소, 돼지, 양계산업 위주로 돼 있었는데 최근에 농식품부에서 오리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품질의 오리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형우 연구원]**

오리고기는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에게 건강 다이어트 식품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선호도가 높고 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로 소비량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오리산업의 향후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최근에 지속적인 오리산업 계열화로 인해 생산기반 자체가 확대되고 있는 것 또한 강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과 기회요인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약점과 위험요소들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원종오리 미보유와 농장들의 생산관리가 미비하다는 점, 소비의 외식편중심화 현상, 국내 AI 상시발생 가능성 등이 오리산업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오리산업의 강점과 기회는 살리고, 약점과 위험요소는 제거·보완할 수 있는 발전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영준 아나운서]**

최근 국민 소득이 늘고 외식산업이 발전하면서 오리고기의 소비와 산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수산정책진단에서 오리산업의 현황,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오리산업 정책방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의 이형우 연구원, 한국오리협회 이강현 전무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